

朝鮮 後期 韓醫學 外延擴大의 一局面

박상영, 오준호, 권오민

한국한의학연구원

A Study on A Phase of Denotation Expansion of Oriental Medicine in the late Joseon Dynasty

Sangyoung Park, Junho Oh, Ohmin Kwo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In the late Joseon Dynasty, a bulky volume of books, which had rarely been seen, poured out including 『Imwongyeongjeji』, 『Japdongsani』, 『Songnamjapsik』 and 『Ohjueonmunjaangeonsango』. such sorts of books have a characteristic that an author collected various pieces of information, which were scatter away at that time, in one's own way and compiled them into a book rather than an author's own remarks or ideas. Most authors of such books were known to have made not a few book beside bulky books. Such a trend of the times doubled its revitalization with the influx of that books in a series that were popular especially in the period of Ming State & Ching State in China. The research work on such a trend once showed not a little progress by a few faithful researchers even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they were overwhelmed by the bulkiness of a book in a series itself and its target volume. However, in spite of not a little fruition of such studies, there has been no comments at all on the new factors of change faced by Oriental medicine in the climate of the intellect history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us, this study aimed at looking at the significance of medical-history-based studies on this matter on the basis of Park, Jiwon's 『Keumryosocho』, and Lee, Deokmu's 『Iemokgushimseo』, and suggesting the further task.

The conclusions obtained from the analysis of 『Keumryosocho』 and 『Iemokgushimseo』 are as follows: 1. The prescriptions cited from the sorts of writings excluded entirely the medical theories on the principles of prescription, and they are composed of a single-medicine prescription or so, which made it easier even for those who lacked a special knowledge of medicine to use it; in addition, it was easy to get medicinal ingredients in most cases. It's presumed that such a composition of medicinal ingredients had a close relation with the difficulty in the supply of medicinal ingredients, which issue became a serious issue in the late Joseon Dynasty.

2. The prescriptions originating from the sorts of writings sometimes are mixed with the ones whose medical efficiency are doubted. This means the inherence of obstacles to delivering accurate medical knowledge couldn't be avoided because the initial purpose of such sorts of writings lay in popularity than practicality.

3. In spite of such problems, the prescriptions originating from writings seems to have not a few influences on the intellectuals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it's possible for us to take a glance on the traces of their use of these prescriptions in an actual daily life.

This fact is fully confirmed by the contents in the preface of "Keumryosocho" that Park-jiwon personally tried to write a prescription. Moreover, such facts can be also confirmed from the fact that the writings of China or our country are seen quite often among the writings which were incited by Seo, Yugu's "Injeji."

Like this, the fact that the information of orthodox medicine and the one originating from general books other than medicine books were integrated at one place is plainly showing a phase of the intellect history in the late Joseon Dynasty deluged with information; because of such a characteristic, we can say that Oriental medicine became plentiful in the aspect of diversity with its expansion of denotation, but Oriental medicine could not but additionally assume the problem of having to distinguish good from bad in the midst of such a situation.

keywords : Oriental Medicine, in the late Joseon, expansion of denotation, Keumryosocho, Iemokgushimseo, Injeji, writings

I. 서 론

조선 후기가 되면 『林園經濟志』, 『雜同散異』, 『松南雜識』, 『五洲衍文長箋散稿』 등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巨帙의 서적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러한 類書들은 대부분 저자 자신의 말보다는 당시에 散在하던 온갖 정보들을 자기 나름으로 끌어와 編制를 가하여 成冊한 것들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책의 저자들은 대부분 이 방대한 서적 외에도 적지 않은 서적을 지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이러한 시대적 조류는 특히 明清에서 유행한 叢書²⁾의 유입으로 활성화가 倍加된다. 叢書의 유입은 새로이 성책되는 서적에 叢書 內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이외에도, 온갖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각종 서적을 생산해내는 풍조 자체를 가져오게 했다는 면에서 우리 知性史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다 하겠다.

이러한 풍조에 대한 연구는 총서 자체의 방대함과 대상 서적의 방대함에 짓눌려 있는 상황에서도 몇몇 성실한 연구자들에 의해 적지 않은 진척을 보인 바 있다.³⁾ 특히 최근 한문학 분과 내에서의 小品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 경향은 이들 연구자들에게 기인하는 바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성향과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선 후기 지성사의 풍토 속에서 叢書 및 小品이 야기한 의학 부문이 갖게 된 새로운 변화요인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전혀 없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燕巖 朴趾源의 『金蓼小抄』와 雅亭 李德懋의 『耳目口心書』를 바탕으로 이 문제에 관한 醫史學的 意義를 살피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⁴⁾

II. 본 론

1. 『金蓼小抄』와 『耳目口心書』에 관하여

燕巖은 熱河에 있을 때에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새로운 처방 중에 쓸 만한 것이 없는지 大理寺卿 尹嘉鎰에게 문의했는데, 윤가전은 10여 종의 靚粧은 서적들을 나열해 주며 북경의 서점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정보를 주었다. 연암은 북경에서 그것들을 열심히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고, 결국 『香祖筆記』를 읽던 중에 우연히 『金陵瑣事』와 『蓼洲漫錄』에 실린 처방을 보게 되어 한 책을 成冊하기에 이른다. 『金陵瑣事』와 『蓼洲漫錄』은 바로 윤가전이 추천한 서적들 가운데 속해 있었던 것이다. ‘金蓼小抄’라는 제목은 바로 위 2가지 서적의 첫 자들을 따서 만든 것이다.⁵⁾ 때문에 이 책은 맨 마지막에 연암이 경험한 우리나라 처방 몇몇을 덧붙인 것을 제외하면 온전히 『香祖筆記』에 보이는 처방을 抄해 놓은 것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 1) 五洲 李圭景을 예로 들면, 『五洲衍文長箋散稿』의 분석만을 통해서도 『五洲衍文長箋散稿』나 『詩家點燈』 등 우리에게 익히 알려졌던 서적 이외에 약 20여종을 서적을 더 지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책 제목과 그 성격은 아래와 같다. 『心遊方』(선박 제조와 船制 등에 대한 책), 『大東溯源考』(우리나라 古蹟에 관한 책), 『李家圖書約』(각종 기계에 관한 책), 『轉濟圖說』(주로 배와 수레 등 각종 기계에 관한 책), 『耕織圖』(수레 등 기계에 관한 책), 『霍痧會要』(콜레라 처방에 관한 책), 『家僕牒』(인삼 재배에 관한 책), 『人部補遺』(人傀에 관해 쓴 회자), 『形管拾遺』(우리나라 부녀자들의 시를 모은 시집), 『諾卓通驗』(천관과 관련된 책), 『統運紀年』(역대 甲子에 관한 책), 『經世紀數』 內外篇(經世書 이하 동일), 『經世紀數原本』, 『經世軌運』, 『經世軌運約本』, 『經世纂圖指要注解』, 『經世一元消長數圖解』, 『經世一元始終數解』, 『經世地運約說』, 『經世地行數原』, 『經世一元消長數圖說』, 『經世始終數釋疑』. 이상의 내용에 관하여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박상영, 「五洲 李圭景의 공부법과 『五洲衍文長箋散稿』의 성립」, 한자한문교육 제19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7. 11. pp. 351-373 ; 박상영·안상우, 「五洲 李圭景의 생애 연구」, 민족문화 제31집, 한국고전번역원, 2008. 6. pp. 151-176.
- 2) 叢書와 類書에 대한 개념 이해는 다음 연구를 살펴보기 바란다. 杜澤遜 『文獻學概要』, 中華書局, 2001. pp. 282-333. 叢書는 목록 자체가 너무 방대하여 목록에 대해서만 거칠은 사전으로 묶여져 나온 바 있다. 총서의 목록 확인을 위해서는 다음 공구서가 유용하다. 楊家駱, 『歷代叢書大辭典』, 警官教育出版社, 1994.
- 3) 대표적으로 다음 연구성과를 들 수 있다. 김영진, 『조선 후기의 명칭소품 수용과 소품문의 전개 양상』,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4.

- 4) 본고에서 제시하는 『金蓼小抄』와 『耳目口心書』는 오류가 없는 한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구축한 <한국고전종합DB>의 원문과 번역문을 따랐다.
- 5) 朴趾源, 『燕巖集』 권15 「金蓼小抄」 “吾東醫方未博, 藥料不廣, 率皆資之中國, 常患非眞, 以未博之醫命, 非眞之藥, 宜其病之不效也. 余在漠北, 問大理尹卿嘉鎰曰: ‘近世醫書中, 新有經驗方, 可以購去者乎?’ 尹卿曰: ‘近世和國所刻『小兒經驗方』, 最佳. 此出西南海中荷蘭院. 又『西洋收露方』極精, 然試之多不效. 大約四方風氣各異, 古今人稟質不同, 循方診藥, 又何異趙括之談兵乎? 正續『金陵瑣事』, 亦多錄入近世經驗, 又有『蓼洲漫錄』, 又『蒼莖草木注』, 『橘翁草史略』, 『寒溪胎教』, 『靈樞外經』, 『金石同異考』, 『岐伯侯鯖』, 『醫學紺珠』, 『百華精英』, 『小兒診治方』, 俱近世扁倉所錄, 京師書肆中, 俱可有之.’ 余既還燕, 求荷蘭『小兒方』及『西洋收露方』, 俱不得. 其他諸書, 或有粵中刻本云, 書肆中俱不識名目. 偶閱『香祖筆記』, 得其所錄, 『金陵瑣事』及『蓼洲漫錄』. 其元書, 未必皆醫方, 而貽上所錄, 俱係經驗. 余故拈其數十則錄之, 餘外誌記及古方雜錄之載筆記中者, 併爲抄錄, 目之曰『金蓼小抄』.”

『耳目口心書』는 雅亭 李德懋가 지은 筆記이다. 燕巖은 雅亭의 行狀에서 그의 저작들을 소개하면서 ‘耳目口心書’의 의미에 대해 “평소의 언행에 있어 道를 벗어나지 않고, 귀 · 눈 · 입 · 마음이 책임을 게을리 하지 않아 듣는 대로 쓰고 말하는 대로 쓰고 생각하는 대로 썼기 때문에 그 이름을 ‘耳目口心書’라 하였다.” 하였고, 아정의 아들인 恩暉堂 李光葵(1788-1856)는 “귀로 들은 것, 눈으로 본 것, 입으로 말한 것,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다.”라고 하였다.⁶⁾ 그야말로 하나의 카테고리로 규정할 수 없는 잡다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作品이라 할 수 있다. 이 ‘온갖 잡다한 정보’ 속에는 의학 정보가 일정 정도 들어가 있다. 총 6권으로 이루어진 『耳目口心書』의 제 5권의 절반 가량이 의학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2. 『金蓼小抄』와 『耳目口心書』 처방의 특성

『金蓼小抄』의 말미의 附錄 부분을 제외하면 『金蓼小抄』와 『耳目口心書』의 처방들은 모두 다른 서적에서 抄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이 자료의 가치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일단 燕巖이나 雅亭이, 독자에게 작품에서 풍기는 文藝美 등 예술적 측면보다는 정보 그 자체의 역할에 집중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燕巖의 다음 언급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내가 열하에 있을 때에 대리시경(大理寺卿) 윤가전(尹嘉鎭)에게, “요즘 의서(醫書)들 중에, 새로운 경험방(經驗方)으로 사서 갈 만한 책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내가 살고 있는 연암협(燕巖峽) 산중에는 의서도 없고 약제도 없으므로, 이질이나 학질에 걸려도 무엇이든 가능으로 대충 하여 치료를 하는데, 때로는 맞히는 것도 있기에 역시 아래에 붙여 산골 속에서 쓰는 경험방을 삼으려 한다.⁷⁾

6) 이상 『耳目口心書』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은 다음 연구결과를 참조 바람. 崔斗憲, 『筆記의 관점에서 본 『耳目口心書』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11. 6. p.45. 筆記와 類書는 실리는 내용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편제의 특성으로 인해 구분은 있어야 한다. 類書는 온갖 잡다한 내용을 싣고 있다는 면에서 필기와 유사하지만, 성책의 목적이 정보의 취합 및 전달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때문에 필기에서 그 내용이 왔건 다른 유서에서 그 내용이 왔건 간에 기록 내용들을 ‘사실’로 파악하는 경향이 짙다. 반면 筆記, 小品 등은 일정 정도 정보에 대한 흥미 유발의 의도가 성책의 주목적에 들어간다는 것에서 유서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읽어낼 수 있다. 첫째, 새로운 경험방에 대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 연암은 기존 처방들에 대한 경험이 다소 풍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은 『金蓼小抄』 序文 初頭에 보이는 우리나라 의학에 대한 비판⁸⁾이나 『金蓼小抄』 말미에 燕巖이 직접 붙인 經驗方으로도 알 수 있다. 둘째, 燕巖이 새로운 처방을 입수하려 한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니라 직접 조제하여 쓰기 위한 것, 다시 말해 실용적 목적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그가 처방을 사용하는 장소로 ‘의서도 없고 약제도 없는’ 산중이 언급되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곳에서는 기존 한의서에 나오는 처방과는 다른 처방을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 처방들을 비교해 보자.

① 맥이 대(大)한 것이 신허요통이다. 『단심』 신허는 통증이 몇지 않는 것이다. 『단심』 성생활로 신(腎)을 상하면 정혈이 부족하여 근을 기르지 못하고, 음허로 끊임없이 아프며 제대로 거동할 수 없다. 육미지황원이나 팔미원 [처방은 모두 허료문에 나온다.]에 녹용당귀 · 모파속단을 넣고 쓴다. 『동원』 신허요통에는 청아원 · 가미청아원 · 장본단 · 국방안신원 · 보수단을 써야 한다. 양허로 허리가 약하여 움직일 수 없을 때는 구미안신환 · 백배환 · 두충환 · 보신탕을 써야 한다. 허리가 약한 것은 간신에 열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황백 · 방기를 써서 치료한다. 『의감』⁹⁾

② 『유환기문(遊宦紀聞)』에는 송나라의 사수(沙隨) 정형(程迥)이 신이 허하여 허리가 아픈 것[腎虛腰痛]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 적고 있다. ‘두충(杜仲)을 술에 담갔다가

7) 朴趾源, 같은 책의 같은 곳. “余在漠北, 問大理尹卿嘉鎭曰: ‘近世醫書中, 新有經驗方, 可以購去者乎?’……余山中無醫方, 併無藥料, 凡遇痢瘡, 率以臆治, 而亦時偶中, 則今併錄于下以補之, 爲山居經驗方.”

8) 朴趾源, 같은 책의 같은 곳. “吾東醫方未博, 藥料不廣, 率皆資之中國, 常患非眞. 以未博之醫命, 非眞之藥, 宜其病之不效也. [우리나라 의학(醫學) 지식은 그다지 넓지 못하고 약 재료도 그다지 많지 못하므로, 모두 중국의 약재를 수입해다 쓰면서도, 항상 그것이 진품이 아닌 것을 걱정하였다. 이와 같은 넓지 못한 의학 지식을 가지고, 또 진품이 아닌 약재를 쓰고 있으니, 병은 으레 낫지 않는 것이다.]”

9) 許浚 지음, 윤석화·김형준 외 옮김, 『對譯 東醫寶鑑』, 동의보감 출판사, 2006. p.706. “脈大者, 腎虛腰痛也. 『丹心』 腎虛者, 疼之不已者, 是也. 『丹心』 房慾傷腎, 精血不足養筋, 陰虛悠悠痛, 不能舉者, 六味地黃元, 或八味元[方并見虛勞], 加鹿茸, 當歸, 木瓜, 續斷. 『東垣』 腎虛腰痛, 宜青娥元, 加味青娥元, 壯本丹, 局方安腎丸¹⁾, 補髓丹. 陽虛腰軟不能運用, 宜九味安腎丸, 百倍丸, 杜仲丸, 補腎湯. 腰軟者, 肝腎伏熱, 治用黃柏, 防己. 『醫鑑』”

술에 담갔다가 구워서 말린 뒤 찼어서 가루 내어 무회주(無灰酒)에 타서 먹는다.¹⁰⁾

①과 ②는 모두 ‘腎虛腰痛’에 대한 처방으로, ①은 『東醫寶鑑』의 내용이고 ②는 『金蓼小抄』의 내용이다. 한 눈에 비교될 수 있는 것은 두 서적에 보이는 처방들 간의 複雜度이다. 우선 『金蓼小抄』에는 병증에 대한 처방을 설명하는 한의학적 원리나 의론 등이 一切 排除되어 있으며, 일관되게 ‘병증 對 처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야말로 원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알아두면 요긴한 ‘formula’라고 할만하다. 그에 반해 ①에서는 腎虛腰痛의 각종 증상과 함께 거기에 알맞은 복합처방들을 나열하고 있다. 여기에 제시된 복합처방들은 모두 적지 않은 종류의 약재가 필요하며 공정 또한 꽤 복잡하다. 반면, ②에서 필요한 약재는 술(약성이 몸속에 효과적으로 퍼지게 하기 위해 쓴 것으로 보인다)을 제외하면 杜沖 한 가지 밖에 없다.¹¹⁾ 오늘날과 달리 당시로서는 산간에 두꺼운 책을 구비하기도 쉽지 않지만 처방의 확보보다는 약재 공급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였던 것이다.¹²⁾ 때문에 처방은 單方에 가깝게 최대한

簡素化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金蓼小抄』에 소개된 처방들을 보면 죄다 단방 혹은 단방에 가깝게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처방에 들어가는 약재 또한 대부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확인을 위해 몇 가지 처방을 더 예시해 보기로 한다.

송 효종(宋孝宗 조신(趙愼))은 게를 많이 먹고 이질을 앓았다. 때마침 엄방어(嚴防禦)란 자가 있어서, 새로 캔 연뿌리를 곱게 갈아서 더운 술에 섞어서 췌더니, 과연 나왔다……생선 가시가 목에 걸렸을 때는 개의 침을 쓰고고, 곡식의 까끄라기가 목에 걸렸을 때는 거위의 침을 입 속에 부어주면 즉시 낫는다. 무릇 물에 빠져 물을 많이 먹었거나 쇠 부스러기를 먹었을 때는 오리 피를 입 속에 부어주면 곧 낫는다. 갑자기 귀머거리가 된 경우에는, 전갈[蝎] 온 마리를 독을 없애고 가루 내어 술에 타서 컹구멍에 방울로 떨어뜨리면, 소리가 들리며 곧 낫는다. 구기자(枸杞子)로 기름을 짜서 등불을 켜고 책을 읽으면, 시력을 더 좋게 할 수 있다.¹³⁾

『金蓼小抄』의 이러한 특성들은 『耳目口心書』에도 많은 부분 그대로 나타난다. 『耳目口心書』도 養生과 질병 치료의 실용적 목적으로 관련 기사를 抄해 놓은 것이 사실일 테지만¹⁴⁾, 『耳目口心書』에는 『金蓼小抄』의

10) 朴趾源, 같은 책의 같은 곳. “『游宦紀聞』記程沙隨治腎虛腰痛：‘杜沖酒浸透，炙乾搗羅爲末，無灰酒調下。’”

11) 杜沖은 腎虛腰痛의 처방에 흔히 쓰이는 약재이다. 위 『東醫寶鑑』에 제시된 처방 가운데 두충이 들어간 처방만을 뽑아도 靑娥元, 加味靑娥元, 壯本丹, 補髓丹, 杜沖丸, 補腎湯 등을 꼽을 수 있다.

12) 조선 후기, 특히 지방의 의약품 수급은 의학계의 난제 가운데 하나였다. 이에 대한 단적인 예는 다음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편자 미상, 안상우·이선아·정창현·백유상·장우창·정우진·김혜일·유정아·김용주 옮김, 『국역 의방합부(意方合部) I』,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3. “余負累居村，患無已病之醫，多求得醫方藥書。遇有病人來問，則認其症，閱其書，得其藥，喜其藥病之相適。且命之先後，思之則曰湯曰散曰元曰丹，醫局所劑，有非窮村之民所能得者。因廢書而嘆曰：‘庖丁之手無刀，則不如得一棒而斃，養由之手無弓，則不如操短兵而接，方書之劑無材，則不如得常材以救。’於是，盡棄全方之書，只取其民間所易得者，兼採其出於父老之聞見而有效者，編集一卷，曰『村家救急方』。[나는 죄를 짓고 시골에서 살게 되었는데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없음을 걱정하여 의방(醫方)과 약서(藥書)들을 많이 구해 가지고 있었다. 어쩌다가 환자가 나를 찾아와 묻는 일이 있으면 어떤 병증(病證)인지 확인하고 방서(方書)를 뒤져서 맞는 약을 찾곤 했는데, 약과 병이 서로 맞는 것이 즐거웠다. 그런데 환자에게 처방을 알려줄 즈음에 생각하여 보니 무슨 탕(湯)이라 하고 무슨 산(散)이라 하고 무슨 원(元)이라 하고 무슨 단(丹)이라 한 것들은 의국(醫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궁벽한 시골의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에 책을 덮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포정(庖丁)의 손에 칼이 없다면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것만 같지 못하고 양유(養由)의 손에

칼이 없다면 단도를 쥐고 붙어서 싸우는 것만 같지 못하듯이, 방서에 있는 처방이 약재가 없다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를 찾아다 치료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처방이 온전히 기록된 방서(‘全方’은 뒤의 單方과 대비되어, 藥味가 구비된 처방을 말한다.)들을 다 버리고, 단지 민간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만을 고르고, 아울러 노인들의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서 효험이 있는 것들을 모아 한 책으로 엮어 『촌가구급방(村家救急方)』이라고 했다.]”

13) 朴趾源, 같은 책의 같은 곳. “宋孝宗食蟹過多患痢，有嚴防禦者，用新採藕節研細，熱酒調服，果愈。……骨鯁，用犬涎，穀芒，用鵝涎灌之，即愈。凡溺水及服金屑，用鴨血灌之，即愈。耳聾暴症，用全蝎去毒爲末，酒調滴耳中，聞聲即愈。枸杞子榨油，點燈觀書，能益目力。”

14) 雅亭이 실용적 목적으로 의학내용을 抄했음은 다음 내용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52 『耳目口心書五』. “喉閉之疾，極速而烈。前輩傳帳帶散，惟白礬一味，然或時不盡驗。老醫教以用鴨嘴膽磨研細，以醋調灌。甫下咽，即大吐去膠痰凡數升即差。然膽礬雖有真者。養生之家，不可不預備。……其孫三歲。發熱七日。瘡出而倒。靨色黑。唇口冰冷。危症也。一士曰。恰有藥。因爲經營少許。俾服之。移時即紅潤如常。其法。用狗蠅七枚。搗碎和醋酒少許。調服。蠅夏月極多易得。冬月則藏於狗耳中。不可不知也。[목구멍이 막히는 병은 증세가 매우 급하면서 심하다. 전배(前輩)는 장대산(帳帶散)을

처방과 비교해 보면,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과학적 근거가 희박해 보이는 것이 『金蓼小抄』보다 많은 부분 混在해 있다. 다음 예시문을 보자.

강서(江西) 마을 안에 어떤 사람이 벼락을 맞아 죽었다. 조금 후에 공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나는데 '잘못되었다. 지령이를 짓이겨서 배꼽을 덮어두면 살아날 것이다.' 하므로 그 말대로 두드려 붙였더니 드디어 깨어났다.……동짓날 밤 자시(子時)에 머리를 1천 2백 번 빗으면 양기를 돕게 되어 평생 동안 오장(五臟)에 기운이 잘 유통하는데, 이를 신선세두법(神仙洗頭法)이라 부른다.……외자부(外姊夫) 장사선(蔣士先)이 하혈(下血)하는 병을 앓으면서 고독(蠱毒 물래 독약을 먹여 중독시키는 것)을 당했다고 말하므로 그 집에서 가만히 양하(養荷 생강과에 속하는 풀)를 자리 밑에 넣어 두었더니, 문득 크게 웃으면서 '나를 고독한 사람은 장소소(張小小)이다.' 하고, 곧 소소를 잡으려 하니 벌써 달아나고 없었다. 이로부터 양하를 고독 해독하는 약으로 사용하였는데 효험이 많았다.¹⁵⁾

위 인용문들은 오늘날 과학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처방들 一色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빙성 면에서 균질하지 않은 처방들이 모여지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잠시 연암이 『金蓼小抄』을 지으면서 그 서문에 그가 抄하는 대상에 대해 “그 원서(元書)는 모두가 의학 관계의 내용은 아니었다”¹⁶⁾는 말을 한 것을 살펴야 한다. 『金蓼小抄』만

붙였는데, 오직 백반(白礬) 한 가지뿐이고 간혹 효험이 없었다. 경험 많은 의원(醫員)이 오리 부리(鴨嘴)와 담반(膽礬)을 곱게 갈아 진한 초(醋)에다 조합해서 목구멍에 흘려 넣도록 가르쳐 주는데 목구멍에 조금만 내려가면 곧 크게 토하게 되고 끈끈한 담을 무릇 두어 되나 토한 다음에 곧 낫는다 하였다. 그러나 담반은 진저를 구하기가 어려우니 양생(養生)하는 사람은 미리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세 살 된 손자가 열이 난 지 7일 만에 두창이 돋으면서 넘어졌다. 두드러기 색깔이 검고 입술이 얼음처럼 싸늘하여 위대한 증세였다. 어떤 선비가 마침 약이 있다 하면서 만들더니 잠시 후에 먹이는 것이었다. 한참 있으니 곧 붉고 윤택하여 회복되었다.' 하였다. 약을 만드는 법은 개과리 일곱 마리를 짓통개고 술을 조금 타서 먹이는 것이다. 파리가 여름철에는 매우 많아서 쉽게 구해지지만 겨울에는 개의 귀 속에 숨어 있으니 알아두지 않아서는 안 된다.”]

15) 李德懋, 같은 책 같은 곳. “江西村中。有人震死。既而空中呼曰誤矣。可將蚯蚓爛搗覆臍中。當差。如言搗之。遂蘇。……冬至夜子時。梳頭一千二百。以贊陽氣。終歲五藏流通。名爲神仙洗頭法。……外姊夫蔣士先。得疾下血。言中蠱。其家密以養荷。寘席下。忽大笑曰。蠱我者。張小小也。乃收小小。已亡走。自此解蠱藥用之。多驗。”

16) 朴趾源, 같은 책의 같은 곳. “其元書, 未必皆醫方.”

보더라도 『香祖筆記』라는 筆記를 抄하여 만들었다. 그 속에 명기된 原出處만 보더라도 『物類相感志』 『遊宦紀聞』, 江隣幾의 『雜志』 『侯鯖錄』 『楓窓小牘』 『癸辛雜志』 『文海披沙』 등 한의서가 전혀 없으며 대부분은 당시 유행했던 筆記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耳目口心書』 소재 의학 내용을 채우는 것의 출처도 오늘날 한의학에서 인정하는 한의서는 극히 드물다. 『金蓼小抄』가 『香祖筆記』라는 단일한 서적의 인용으로 이루어진 반면 『耳目口心書』는 많은 서적들이 인용서로 거론되어 있다. 그 서적들을 일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群芳譜』 『夷堅志』 『劉根別傳』 『孫公談圃』 『癸辛雜志』 『程史』 『睽車志』 『稽神錄』 『養老方』 『焦氏類林』 『廣濟方』 『月令廣義』 『搜神記』 『治金瘡方』 『古今驗錄』 『傳信方』 『本草綱目』 『感遇傳』 『風俗通義』 『顏氏家訓』 『筆談』 『志林』 『澠水燕談』 『墨客揮犀』 『酉陽雜俎』 『西溪叢語』 『老學庵筆記』 『楓窓小牘』 『鶴林玉露』 『探蘭雜志』 『嫩媛記』 『潛居錄』 『蓼花洲閒錄』 『養荷漫筆』 『文昌雜錄』 『續明道雜志』 『蘇譚』 『升菴外集』 『菽園雜記』 『說郛』 『栢記室』 『遼齋閑覽』 『物理小識』 『莫氏八林』 『客中間集』 『霏雪錄』 『群碎錄』 『近峯聞略』 『三餘贅筆』 『塵餘』 『菊坡叢話』

주목할 것은 위 인용서 가운데, 조선후기 우리나라에서 閱讀했던 『本草綱目』 외에는 한의서를 거의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나마 넓은 의미의 한의서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은 『養老方』 『廣濟方』 『月令廣義』 『治金瘡方』 『古今驗錄』 『傳信方』 등이다. 그러나 이 서적들은 인용되는 방식이 다른 필기와는 차이가 난다. 『耳目口心書』의 인용문을 분석해 보면, 『養老方』 『廣濟方』 『月令廣義』의 인용 내용은 『淵鑑類函』에서 재인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治金瘡方』의 내용은 『藝文類聚』에서 왔을 가능성이 크고, 『古今驗錄』 『傳信方』의 내용은 『本草綱目』에서 재인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耳目口心書』에서의 의학적 내용들은 『本草綱目』을 제외하면 의학서에서 온 내용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群芳譜』(農書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인용서적이 필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필기들이 說郛, 稗海 같은 叢書 내에 자리한 서적들이 많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서적은 실제적인 처방이 섞여있기는 하지만, 책 자체가 대중에게 읽히기 위해 흥미로운 요소를 많이 가미한다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처방이 한의학적 내용과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연암이 처방을 써서 “때로는” 맞히는 것도 있었다¹⁷⁾는 이유일 것이다.

3. 조선 후기 한의학 외연확대의 일국면

조선 후기 어느 시기가 되면 중국에서 시작된 叢書 閱讀 현상이 조선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그 내용의 일부를 抄해서 成冊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 가운데는 의학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金蓼小抄』와 『耳目口心書』는 이러한 지적 풍토 하에서 산생된 저작물이다.

이러한 저작물은 의학 전문서적에서 인용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나, 대부분 의학전문서적보다는 당시에 유행했던 필기 속에 산재한 내용을 흡수하는 경향이 짙다. 그 속에는 한의학적 해석이 가능한 것도 있으나 허황되게 느껴질 만한 자료들도 혼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18세기 문인들의 지적 환경에 대해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음 글을 보자.

장사전(蔣士銓) 희곡의 대부분은 사실상 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극으로 각색된 연대기이다. 그러한 작품들 가운데 하나인 『임천몽臨川夢』은 20척(齣)을 통해 명대(明代)의 극작가 탕현조(湯顯祖:1550-1617)의 생애를 자세히 묘사한 것이다. 또, 적어도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장사전의 9편의 희곡에는 항상 초현실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난다. 즉, 선계(仙界)에서 추방되어 세속인이 된 사람에 관한 것, 하늘의 경교와 미래를 예언하는 꿈에 관한 것, 도교의 요술에 관한 것, 그리고 대체로 영혼의 세계가 일상적인 현실세계를 끊임없이 침해해 들어오는 것에 관한 것 등이다. 나는 이러한 초현실적인 요소가 다만 극작법상의 습관 때문에 들어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불교신앙, 도교신앙, 그리고 토착 민간전승 등이 혼합되어 이루어진, 이렇게 반쯤 숨겨졌지만 언제나 현존하는 세계, 그리고 그곳에서 생긴 모든 일들은 18세기 중국인에게는 일상생활에서 생긴 일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것이었다.¹⁸⁾

과학적인 혹은 의학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오늘날의 잣대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Arthur Waley는 18세기를 살다 간 蔣士銓(1725-1785)이라는 유명한 희곡 작가를 평가하면서 18세기의 ‘현실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 나름의 해석을 가한다. 우리가 『金蓼小抄』나 『耳目口心書』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에도 이러한 유연한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오늘날의 식견으로 보자면, 의학적인 것과 비의학적인 것이 혼재하고 그것이 온갖 정보들 속에 융화되어 있으면서 실용적 목적으로 쓰이기도 한 상황, 그것이 바로 18세기 문인들에게 주어졌던 의학적 정보의 상황이었으며, 오늘날에는 그것이 바로 큰 장점인 동시에 한계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때문에 필기에서 유입되는 의학적인 정보는 다만 재미를 위해 심심파적으로 읽혀진 것에 그치지 않고 燕巖이 그러했듯 일상에서의 의학적 대처로 쓰이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金蓼小抄』의 서문뿐만 아니라, 누구나 중요한 한의서의 하나라 여기고 있는 楓石 徐有渠(1764-1845)의 『仁濟志』를 살펴보면 확인 가능한 일이다.¹⁹⁾

『仁濟志』의 인용서는 대부분 전통의학서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인용된 서적들을 조금만 더 찬찬히 들여다보면 『癸辛雜志』, 『桂海虞衡志』, 『仇氏稗史』, 『蓼花州閑錄』, 『茅亭客話』, 『文昌雜錄』, 『物類相感誌』, 『博物志』, 『方勺泊宅編』, 『北夢瑣言』, 『西方要紀』, 『歲時雜記』, 『蘇沈良方』, 『嶺南雜識』 등 당시에 유행했던 中國 叢書 所在 筆記의 내용에서 차용한 것들이 적지 않게 발견됨을 알 수 있다. 심지어는 당시 유행했던 총서인 說郛에서 인용했다는 내용도 보인다. 뿐만 아니라 『於于野談』, 『이목구심서』 등 우리나라의 유사나 필기류들도 피인용된다. 이는 서유구가 『仁濟志』라는 의학서적을 成冊할 때에 필기 등에서 차용한 내용들이 ‘의학적’인 효용이 있다고 여기고 편집에 넣었을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이것이 바로 조선후기 한의학 정보의 모습 가운데 일면이며, 특히 문학교양을 쌓은 문인들에게는 필기류가 그들이 획득한 의학정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정황을 엿보이게 하는 것이다.

18) Arthur Waley, 『Yuan Mei: Eighteenth Century Chinese Poet』, Grove Press, 1956.

19) 『仁濟志』 원문텍스트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고전명저총서D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http://jisik.kiom.re.kr/>)

17) 朴趾源, 같은 책의 같은 곳. “余山中無醫方, 併無藥料, 凡遇痢瘡, 率以臆治, 而亦時偶中.”

Ⅲ. 결 론

이상 소략하게나마 『金蓼小抄』와 『耳目口心書』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叢書 閱讀이 가져 온 한의학 내의 변화에 관해 알아보았다. 논의를 집약하여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도록 한다.

『金蓼小抄』와 『耳目口心書』의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필기류 등에서 인용된 처방은 처방의 원리에 대한 의론 등이 일절 배제되어 있으며, 單方 혹은 단방에 가까운 처방으로 구성되어 의학적 전문지식이 결여된 자들도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약재 또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약재 구성은 조선 후기 심각하게 부각되던 약재 수급의 난항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필기류 등에서 기원하는 처방은 때로는 의학적 효능이 의심되는 처방들이 섞여 들어가 있다. 이는 필기류의 애초 목적이 실용성보다는 대중성에 있었던 이유로 인해, 정확한 의학지식의 전달에 장애요소가 내재할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한다.

3.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필기류에서 기원하는 처방들은 조선후기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준 듯하며, 특히 그들은 이 처방들을 실제 생활에서 활용했던 흔적이 엿보인다. 이는 『金蓼小抄』의 序文에서 燕巖이 직접 처방을 써 보았다는 내용으로 십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楓石의 『仁濟志』에서 인용된 서적 중에 심심찮게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筆記들이 보이는 것에서도 확인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정통의학의 정보들과 의학서가 아닌 서적에 기원하는 의학정보들이 한 곳에서 융화되는 것은 정보로 넘쳐났던 조선후기 지성사의 일국면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한의학은 그 외연이 확대되고 다양성의 면에서 훨씬 풍부해졌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玉石을 가려야 하는 문제를 추가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게 되었다.

우리가 본고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으로 다음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연구주제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金蓼小抄』에 附錄되어 있는 글은 짧지만 燕巖의 經驗方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요성에서는 다른 처방에 앞선다고 할 수 있다. 몇 안 되는 이 처방들이 다른 의서들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2. 의사학 분야에서 다루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인용서들의 범위 확정이 몹시 어려운 서적 가운데 하나가 『五洲衍文長箋散稿』이다. 이 서적에 대한 의학 연구가 없지는 않지만,²⁰⁾ 더욱 精緻한 접근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논의와 五洲 자신의 경험방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五洲는 누구보다도 그의 할아버지인 雅亭 李德懋의 영향을 깊이 받았기 때문이다.

Ⅵ. 참고문헌

1. 박상영, 「五洲 李圭景의 공부법과 『五洲衍文長箋散稿』의 성립」, 한자한문교육 제19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7. 11.
2. 박상영 · 안상우, 「五洲 李圭景의 생애 연구」, 민족문화 제31집, 한국고전번역원, 2008. 6.
3. 楊家駱, 『歷代叢書大辭典』, 警官教育出版社, 1994.
4. 杜澤遜, 『文獻學概要』, 中華書局, 2001. pp. 282-333.
5. 김영진, 『조선 후기의 명청소품 수용과 소품문의 전개 양상』,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4.
6. 朴趾源, 『燕巖集』 권15 「金蓼小抄」,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출처: <http://db.itkc.or.kr/>)
7.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52 「耳目口心書五」,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출처: <http://db.itkc.or.kr/>)
8. 崔斗憲, 『筆記의 관점에서 본 『耳目口心書』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11. 6. p.45.
9. 許浚 지음, 윤석화·김형준 외 옮김, 『對譯 東醫寶鑑』, 동의보감출판사. 2006.
10. 편자 미상, 안상우 · 이선아 · 정창현 · 백유상 · 장우창 · 정우진 · 김혜일 · 유정아 · 김용주 옮김, 『국역 의방합부 (意方合部) I』,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11. Arthur Waley, 『Yuan Mei: Eighteenth Century Chinese Poet』, Grove Press, 1956.

20) 주영하·김소현·김호·정창권, 『19세기 조선, 생활과 사유를 엿보다』, 돌베개, 2006.

12. 徐有榘, 『仁濟志』,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고전명저
총서DB> 출처: <http://jisik.kiom.re.kr/>)
13. 주영하·김소현·김호·정창권, 『19세기 조선, 생활과
사유를 엿보다』, 돌베개, 2006.